헤이스, 광주FC 네번째 득점왕 노린다

헤이스

17경기 출장 8득점 1도움
득점 선두 티아고 1골차 추격
"감독의 믿음·팬들 응원 감사"

"올 시즌 득점왕이 목표이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FC 헤이스(29)가 지난 5일 충남아산전이 끝난 뒤 올 시즌 득점왕 타이틀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헤이스는 이날 멀티골을 터트리며 8득점(1도움)을 기록했고 경남FC 티아고(9득점 2도움), 충남아산 유강현(8득점 2도움)에 이어 득점 부문 3위에 올랐다.

팀도 헤이스도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12경기 무패행진으로 K리그2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헤이스 역시 매 경기 피치 위를 누비며 광주의 승리를 이끌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득점왕도 욕심만은 아니다. 브라질 출신인 헤이스는 빠른 스피드와 함께 드리블 돌파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침착한 마무리와 날카로운 패스, 뛰어난 슈팅 등 다재다능함을 갖췄으며 공격형 미드필더와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FC를 통해 K리그에 입성한 헤이스는 30경기 출전, 4득점 5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가 적응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마치 '물 만난 고기'다. 이미 지난 시즌 득점의 2배를 기록했다.

헤이스는 "그전에 있던 에이스들처럼 광주FC에 내 이름을 새겨 역사로 남고 싶다. 목표인 득점왕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역대 정조국(2016년), 나상호(2018년), 펠리페(2019년) 등 3명의 득점왕을 배출했다. 헤이스는 이들의 뒤를 이어 광주의 4번째 득점왕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공격수답게 헤이스의 활약은 광주의 승리로 직결된다.

올해 2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작렬시켜 광주FC에 시즌 첫 승을 안겼고 7라운드 충남아산과의 경기에서는 극적인 역전결승골을 넣었다. 17라운드 경남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1-2로 팀이 끌려가던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더니 5일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3-2 승리와 함께 K리그 시도민구단 홈 최다 연승 신기록을 견인했다.

헤이스는 "팀의 승리를 이끌게 돼 기쁘다. 이번 상대 충남아산은 우리와 다른 축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며 "감독님이 나를 믿고 출전시키는 점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파울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기회는 항상 찾아오니까 기다리라고 감독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면서 "경기할 때마다 득점왕을 할 수 있다는 주문을 하면서 플레이에 임한다"고 말했다.

특히 헤이스는 경기 때마다 관중석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팬들에게 고마워했다.

헤이스는 "많은 사랑을 받아서 팬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 항상 좋은 경기력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100번째 경기 승리로 자축하게 돼 기뻐"

손흥민 '센추리클럽' 가입
12년간 A매치 통산 32골

A매치 100번째 경기에 나선 손흥민(30·토트넘)이 한국의 승리를 이끌며 기분 좋게 '센추리클럽' 가입을 자축했다.

손흥민은 지난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칠레와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자신의 100번째 A매치를 치렀고, 후반 46분에는 2-0 승리를 완성하는 쐐기골로 자신의 32호 골까지 기록했다.

경기 뒤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2일) 브라질(한국 1-5 패)과 경기를 하고 며칠 안 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좋은 정신력과 좋은 자세로 경기에 임해줘 고맙다"고 동료들을 먼저 치켜세웠다.

그는 "크게 지고 나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도 선수들이 잘 해줘 이길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좋은 경기를 했다"며 "내 100번째 경기를 승리로 자축하게 돼 기쁘다.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2010년 12월 시리아를 상대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어느새 대표팀에서 12년을 보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뛴 경기만 해도 31경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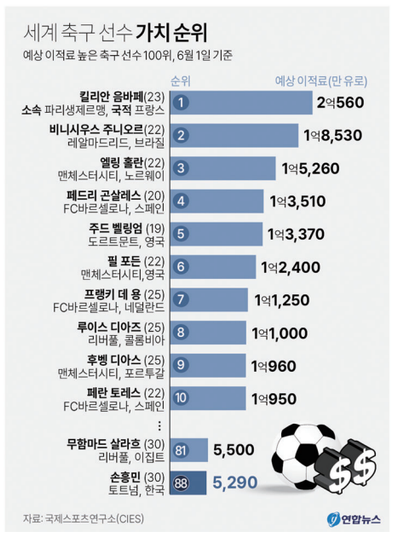
한국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6경기)과 최다 득점 기록(58골)을 보유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다.

손흥민은 역대 출전 순위에서 박지성, 조광래(이상 100경기)와 공동 14위에 올랐고, 득점에선 차범근, 황선홍(50골), 박이천(36골), 김재한·이동국(이상 33골)에 이어 통산 득점 단독 6위로 도약했다.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23골을 폭발한 손흥민은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 소속으로 남긴 17골을 넘어 한국 선수 유럽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변함없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손흥민은 "팬들이 축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책임감을 느끼며 열심히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칠레의 경기. 대한민국 손흥민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축구선수 가치' 88위
예상 이적료 710억 평가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세계 축구 선수 가치 순위에서 88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에서 예상 이적료가 가장 높은 축구 선수 100명 중 88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100위 이내에 포함된 손흥민의 예상 이적료는 5,290만 유로(약 710억원)로 평가됐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등 최근 활약에 있어선 세계 최정상급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손흥민이 이 순위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한 건 나이의 영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 30세인 EPL 공동 득점왕 살라흐는 81위(5,500만 유로)에 자리했다./연합뉴스

광주·서울 생활체육 교류
9~10일 3개 종목 130여명

광주와 서울 생활체육인들이 3년 만에 광주에서 만나 우정을 나눈다.

7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9~10일 광주 일원에서 야구, 스쿼시, 파크골프 등 3개 종목 총 130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서울 스포츠 우호교류'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이번 우호교류에 서울은 임직원 등 선수단 50여 명을 파견하고, 친선 경기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 등 다양한 문화도 체험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야구는 북구종합운동장 야구장, 스쿼시는 광주시체육회관 스쿼시장, 파크골프는 첨단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3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교류 행사인 만큼 양 선수단의 안전과 화합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서울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수창초는 지난 6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2022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서림초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수창초 2022 춘계초등 야구대회 우승

김동혁 MVP·임재영 우수투수

수창초등학교가 지난 4~6일 첨단야구장에서 열린 2022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7개 야구팀이 참여,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수창초는 대회 첫날 송정동초를 6-0으로 이긴 뒤 우천 순연으로 6일 더블헤더를 치렀다. 준결승에서 서석초를 8-0으로 꺾은 수창초는 결승에서 서림초를 13-6으로 이겨 우승했다.

수창초 김동혁과 임재영이 각각 최우수선수와 우수투수로 선정됐다.

수창초 장인서는 타격상(8타수5안타), 수창초 장선익은 최다도루상(3개), 수창초 조성찬은 최다타점상(4타점)을 받았다.

준우승을 차지한 서림초 최현준과 김준엽은 각각 감투상과 미기상을 수상했다.

감독상은 수창초 류창희 감독이 받았다. /최진화 기자

'종아리 부상' 놀린, 최소 4주 더 공백

투수 물색 '투 트랙' 방침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교체를 검토 중이다.

7일 KI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훈련 도중 종아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놀린이 최소 4주 이상 합류하지 못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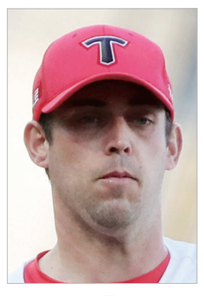
놀린은 부상 이전까지 2승 4패 평균자책점 3.53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치열한 상위권 순위 경쟁이 벌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놀린의 부상 회복이 생각보다 더뎌지자 KIA는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놀린의 복귀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복귀가 더 늦어질 상황까지도 함께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제구력 불안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는 로니 윌리엄스의 교체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올 시즌 7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로니는 평균자책점 3.90의 무난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잦은 볼넷 허용으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이 1.61에 달하는 등 제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놀린

다른 구단들의 발빠른 외국인 선수 교체 움직임도 KIA 프런트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kt 위즈는 외야수 헨리 라모스와 우완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를 교체했고,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도 각각 내야수 리오 루이즈와 좌완 투수 라이언 카펜터를 방출했다.

장정석 KIA 단장은 "놀린의 복귀를 기다리면서도 미국 쪽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당초 접촉했던 첫 후보와는 계약이 불발됐고 두 번째 후보는 선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린이나 로니보다 더 나은 선수로 계약할 수 있다면 교체를 단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지 상황이 마땅치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혜원 기자